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10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관대함의 교훈

(지혜서 12,19-22)

시작성가

진행자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하거나 성가 405장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1절을 부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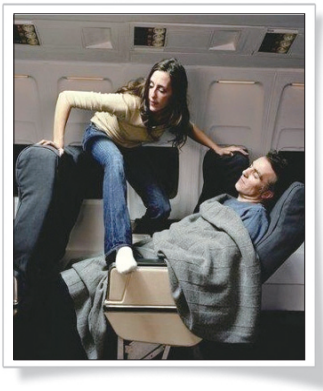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 오소서.
- 저희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 사진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1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원수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까지 악에서 벗어날 시간과 기회를 베푸시며 그토록 주의와 배려를 다하여 처벌하셨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심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당신께서는 맹세와 계약으로 좋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벌하시지만 저희의 원수들은 만 번을 더 채찍질하시니 저희가 남을 심판할 때에는 당신의 선하심을 잘 생각하고 삼판을 받을 때에는 자비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 느낌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다리고 배려해주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진(秦)나라 목공이 양산(梁山) 일대로 사냥을 나갔을 때 일이다. 평소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명마 몇 필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곧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고 지산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왕의

말을 잡아먹는 현장이 발각되었다. 관리들은 왕에게 주민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신하들을 꾸짖고 "이미 말은 사라지고 없다, 하물며 말을 잡아먹었다고 그들을 처형한다면 이는 인간의 목숨이 한낱 말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미 죽은 말은 어쩔 수 없는 것"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목공은 수십 통의 어주(御酒)까지 하사하며 "내 듣기로 말고기를 먹고 좋은 술로 입가심을 하지 않으면 속병이 난다."고 하니 그들에게 이 술을 보내 몸을 보하게 하라고 명했다.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목공의 관대함과 자애로움에 감동되어 한없이 감사하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고 한다. 훗날, 적군의 침입으로 목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포위망은 뚫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마을 주민들이었다고 하니 목공의 관대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진행자 나는 내 삶에서 누구를 배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하거나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1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9일기도'란?

9일기도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하여 9일 동안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9일이란 숫자의 기원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며 9일 동안 기도한 후 10일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새로운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만방에 퍼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희랍 또는 로마 사람들에게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9일간 슬퍼하던 장례 풍속에서 9라는 숫자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화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9일은 슬픔을 나타내는 날이며, 동시에 축제를 지내는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황이 선종하면 9일장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옛 로마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9일기도의 신심은 아름다운 것이며,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지니고 적당한 기도나 희생, 단식을 9일 동안 계속하면 교회는 특별한 은사까지 허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일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중간에 빠지면 그 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토속신앙의 기복적인 면과 혼합되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을 위한 100일기도를 드린다든지, 선종하신 분을 위한 49일 미사를 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결코 계약이나 흥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드리는 9일기도라면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나누기로 거듭나는 소공동체

- 호계성당 1구역 1반 -

저희 호계성당은 성당을 지은 지 10여년 만에 삼계성당을 분가시킬 만큼 단기간에 유입인구가 급증했던 마산의 외곽지인 내서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계성당은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소공동체가 속해 있는 1구역은 성당 인근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로 신앙촌이라 불릴 만큼 오래 된 신자들이 많고 대부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소공동체 모임의 장소와 시각을 알리는 반장님의 문자 메세지가 날아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소공동체 모임이 있는 날은 다른 일들을 접어두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의 특징은 말씀나누기를 알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성가를 부르고 주님을 초대하고 제시된 사진을 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사진만 보고 삶의 나누기를 하기가 어려울 때는 하느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어 삶의 나누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 후 말씀나누기를 합니다. 말씀나누기는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에는 성경봉사자가 있어서 복음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씀나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는 바로 잡아 주기도 하여 더욱 알찬 말씀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지하게 토론을 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말씀나누기가 끝난 후에도 모임

을 개최한 가정에서 준비한 다과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욱 진솔하고 재미있는 신앙이야기와 생활 속 지혜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면 늘 마음이 풍성해진 느낌이 듭니다. 저희 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한 자매님은 저희 모임이 그립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희 소공동체 일원들은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냉담교우가 있으면 시간을 내어 자주 가정방문을 합니다. 또한 본당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 부회장을 비롯하여 선교부장, 구역장 등 본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각종 단체의 간부직을 맡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형제님은 날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성당마당을 청소하고 나무에 물을 주며 성모상 주변을 다듬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당 일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나누기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공동체는 비록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모임을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말씀나누기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호계성당 1구역 1반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표지그림「심순화」